

# 여론조사 투표율 5% 그쳐... 흥행도 민의 반영도 실패

## 민주 광주시장·전남지사 경선 표 분석해보니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전남지사 후보 경선이 막을 내렸지만, 사실상 흥행에는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국민여론조사(50%)와 권리당원 ARS투표(50%)로 진행된 경선에서 국민여론조사 투표율이 4~5%에 그쳤기 때문이다. 권리당원 투표율도 40%대에 그치는 등 과반(50%)을 넘지 못하면서 민주당 광역단체장 경선 결과가 사실상 민의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오는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경선을 조속히 끝내겠다는 민주당의 조급함 때문에 짧은 경선 기간 후보들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정책토론회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유권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책 경쟁 보다는 경선 후보들 간 '난타전'이 지속된 점도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한 이유로 꼽히고 있다.

지난 18~20일까지 사용된 진행됐던 광주시장 경선 중 권리당원 조사에서는 권리당원 4만3381명 중 1만8567명이 투표해 42.08%의 투표율을 보였다. 특히, 권리당원은 10명중 4명이 투표에 참여했지만 안심번호를 이용한 국민여론조사에서는 6만명 가운데 3200여명만이 투표해 5.41%의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광주시민 10명 중 1명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권리당원 투표 결과 이용섭 후보는 탈당 경력에 따른 10% 감산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53.70%인 9971표를 얻어 1위를 차지

## 권리당원 투표율도 절반 이하

## 정책토론회 등 없이 졸속 진행

했고, 강기정 후보는 5989표(32.26%), 양향자 후보가 2607표(14.04%)를 얻었다.

국민여론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1902표(58.83%), 강 후보가 950표(29.38%), 양 후보는 381표(11.78%)를 각각 얻었다. 3명의 후보 중 문재인 대통령 직함을 사용할 수 있는 이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더욱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광주시장 경선에 광주시 유권자 113만8000여명(제6대 지방선거 기준) 중 1.9%인 2만1800여명만이 참여해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를 선정한 셈이어서 경선 흥행에는 실패했다는 평가다.

광주시장 경선과 같은 방식으로 치러진 전남지사 후보 경선도 마찬가지로 결과를 보였다. 전남지사 경선은 1차 경선에서 1위 후보인 김영록 후보가 과반(50%)투표를 얻지 못하면서 2위인 장만채 후보와 결선 투표를 벌였다.

결선투표에서는 권리당원 5만7000명 중 2만6204명이 투표해 45.97%의 투표율을 보였지만, 국민여론조사에서는 6만명 중 2566명이 투표해 4.27%의 투표율에 그쳤다.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광주시장 경선보다 더 높은 투표율을 보였지만, 국민여

론조사에서는 광주시장 경선 투표율보다 낮았다.

전남지역 전체 유권자 154만9440명(제6대 지방선거 기준)중 1.8%인 2만8770명이 참여해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를 선출한 셈이다. 전남지사 결선투표 결과 김영록 후보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62.33%(1만6333명)의 득표율을, 국민여론조사에서는 61.50%(1578명)의 득표율을 올리면서 장만채 후보를 여유있게 따돌리고 전남지사 후보로 확정됐다.

전남의 경우 후보들이 뒤늦게 경선에 뛰어들었다, 경선 기간이 10일 정도 밖에 되지 않아 권리당원을 제외한 일반 유권자들이 경선 참여를 외면하면서 흥행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데도 광주와 전남에서 권리당원 투표율이 과반을 넘지 못하고,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4~5%에 그친 것은 그만큼 경선 과정이 지역민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면서 "광주와 전남은 당 지지율이 높은 만큼 광역단체장 경선 등의 일정을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미뤄 차분하게 치렀다면 경선이 흥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이처럼 지역 유권자들이 빅 이벤트로 접목됐던 민주당 광역단체장 경선을 외면한 만큼 본선에서 경쟁력있는 다른 여당 후보가 나서지 않을 경우 투표율마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청사 행정동 벽면에 지난 22일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기원하는 한반도기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남북 화해 분위기가 속속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 남북미술교류전 등 다양한 교류행사가 이어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5·18기념식 ‘역대 최대’ 지난해 규모로 치른다

### 보훈처 실무준비 본격 착수

### ‘임 행진곡’ 클래식 콘텐츠로

제38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다. 오월 주모곡이자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상징곡이 된 ‘임을 위한 행진곡’이 클래식으로 탄생돼 광주정신을 담은 문화예술 콘텐츠로 제작·활용할 방침이다.

23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다음달 18일 열리는 올해 5·18 기념행사를 지난해 수준으로 개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실무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정부 기념행사로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지난해 5·18 기념식에는 1만여명이 참석했다. 당시 4년 만에 대통령이 참석했고 조정창이 없어도 누구나 행사장에 들어갈 수 있는 ‘열린 기념식’으로 치러졌다. 기념식 참석

자 1만여명은 5·18이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1997년 이래 역대 최대 규모였다.

보훈처 관계자들은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5·18기념식은 지난해 수준으로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국가유공자 좌석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보훈처는 현재 실무진을 꾸리고 구체적인 행사 계획안을 수립 중이다.

광주지방경찰청도 지난 20일 5·18기념재단을 방문해 5월 단체들과 올해 기념식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자리에는 배웅주 경찰청장과 정준식 5·18유족회장, 김후식 5·18부상자회장, 양희승 5·18구속부상자회장,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제38주년 5·18기념식과 관련, 올해도 대규모 행사가 예상되는 만큼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자고 뜻을 모았다. 5·18단체장들은 5·18의 역사적 의미를 잘 보여줄 수 있도록 경찰의 열린 모습을 기대했으며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인권전화집회시위 권리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보아라 오월의 진실, 불어라 평화의 바람’ 슬로건 아래 다양한 행사를 준비 중이다. 다음달 31일까지 광주·전남, 서울, 대구, 부산, 대전 등 전국 각지와 독일 베를린 등에서 문화·예술·학술·교육·종교 등 11개 분야 130여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은 민중의 뜨거운 삶과 시대정신이 담긴 ‘임을 위한 행진곡’을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감동받을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로 제작·보급하는 등 대중화·세계화하는 작업을 올해부터 본격화하기로 했다. 5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는 대중화·세계화 사업은 올해 1차년도 사업으로 전 세계인들이 접하기 쉬운 보편적인 감성의 언어인 클래식(관현악곡)으로 제작, 국내·외 연주회 등을 가질 예정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광주세계수영대회 남북단일팀 기대감

### 한반도 화해 분위기 타고

### 스포츠 교류 활발해질 전망

### 조직위 FINA에 역할 주문

오는 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북한 참가와 남북한 단일팀 출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앞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의 스포츠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특히 북한 선수단이 광주를 찾는다면 광주세계수영대회의 슬로건인 ‘평화의 물결 속으로’(DIVE INTO PEACE)의 의미가 현실화되는 성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3일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

원회(이하 조직위)는 “정부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향후 남북 문화·스포츠 교류를 재개하고 확대할 방침이며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도 열려 광주수영대회 북한선수단 참가와 남북 단일팀 출전 등 다양한 남북교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이에 대해 공식 브리핑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이를 위해 최근 태국에서 열린 ‘스포츠계의 국제연합(UN) 총회’로 불리는 2018스포츠어코드 컨벤션에 참가해 국제스포츠 단체인 피스앤스포츠 등과 북한의 이번 수영대회 참가를 위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피스앤스포츠 로항 듀동 사무총장은 “올해부터 평화를 주제로 한 국제포럼 등 사전 대회 이벤트 등을 통해 강력한 평화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직위는 또 최근 광주를 찾은 국제수영연맹(FINA) 코넬 마르클레스쿠 사무총장 등 FINA 대표단과 북한의 광주세계수영대회 참가 문제를 처음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장현 광주시장이 북한 참여를 위한 FINA의 역할을 주문하자, FINA 코넬 사무총장은 “FINA 회원국인 북한의 참여를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100% 북한이 참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도 광주비엔날레북한미술전시(오는 9월 1일~11월 11일), 남북양국 스포츠 교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북한문화 전시전 개최 등 문화교류도 준비하고 있다. 또 광주시는 23일 광주시청사 벽면에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하고 성공을 기원하며 한반도기가 그려진 현수막을 내걸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HNT** 하나투어
하나팩

# 4월 30일부터 무안 → 다낭·방콕·오사가 하늘길이 활짝!

## 제주항공 정규편 신규 취항! 하나투어에서 준비한 취항 특가 지금 떠나기 딱 좋습니다!

**무안 ↔ 방콕 주4회 운항**  
3박5일(수/목) 4박6일(토/일)

AAPF01  
**방콕/파타야 5일,6일**

**399,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40 / 선택경비 있음  
#산호선 즐기 #다양한 특식

**무안 ↔ 다낭 주2회 운항**  
3박4일(토) 4박5일(화)

AVPF13  
**다낭/호이안/후에 4일,5일**

**499,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40 / 선택경비 있음  
#휴양과 관광 오감만족 #힐링여행지

**무안 ↔ 오사카 주8회 운항**  
3박4일(월/목/금/일) 2박3일(수/금)

JOPF01  
**오사카/교토/나라 3일,4일**

**649,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없음 / 선택경비 있음  
#쇼핑,관광,먹거리 천국 #다양한 특식

인신금액 캠페인 | Fair Price 공정한 가격, 즐거운 여행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장점 062)228-1199**

■ [여행상품 가격표 포함비]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생보비용,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려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되며,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권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단체별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r.com 참조) ■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가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관광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체별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r.com 참조) ■ [비행기] 비행기 탑승 시 안전을 위하여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습니다. ■ [관광사] 단체여행은 2018년 4월 20일~5월 31일까지 제주항공 정기편 41 하나투어 항공(주)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호텔 2곳 포함) 1일/교동편 항공/버스/해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장착/불만접수 16, 1577-1233/ARS 안내번호 020 ■ 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의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국제항공료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및 선택 시 대체일정은 홈페이지(www.hanator.com) 참조.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현황 | ●여행 유의 ●여행 자제 ●참수 권고 ●여행 금지 | 본 상품은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장점]에서 판매하고 실제 여행주관은 (주)하나투어에 담당합니다.

**H** 여행, 하나면 돼! 하나투어업에서 확인하세요.
|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